



내년 6·3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지방선거 물밑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 최대 관심사는 역시 광주시장·전남지사 등 지역 내 광역단체장의 향배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만큼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역 단체장과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등이 맞붙는 다자구도 속 후보군의 행보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편집자주

# 현직 재선 의지에 ‘다자대결’ 구도…치열한 ‘각축전’

## 광주시장

강기정 시장, 수성 여부 관심사  
민형배 “비전 준비후 출마선언”  
문인 “광주 위기 정부와 극복”  
이병훈 “광주·호남 발전 최선”  
정준호 “정부 합 맞출 적극자”



(현직·가나다순)

내년 6·3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장 선거 후보군이 속속 출마 의지를 드러내면서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장 선거는 현직 강기정 시장의 재선 도전을 포함해 9명의 후보가 자진타진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주자들이 가세하는 다자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강 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강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이용섭 당시 시장을 꺾고 본선 75% 득표율로 광주시장에 당선됐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AI 산업 육성, 복합쇼핑몰 유치 등 시민 중심의 혁신 행정을 펼쳐왔다. 소비쿠폰 색상 논란 등 악재를 겪기도 했으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초 아래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선 대항마로 재선의 민형배 국회의원이 일찌감치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 의원은 오랜 기간 중앙정치와 지방자치 경험을 쌓은 인물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핵심

직적 역할을 하며 당내 입지를 다졌다. 현재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검찰개혁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도심 침수 대책 등 현안을 챙기며 광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시장 출마를) 마음 먹지는 꽤 됐다”며 “광주의 미래 비전이 적절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이후 출마를 공표할 생각이다. 아직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인 북구정장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 정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 전문가로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한 조직 운영과 재정 관리 능력이 강점이다.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주역으로 꼽히며 13년 연속 예산 신속 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전국 최초 ‘북구형 주치의제’ 등 성과를 내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문인 정장은 “광주는 현재 재정·인구·산업 위기에 직면했다. 시민들의 지혜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도 출마표를 던지고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호남 메신저’로 불리며 중앙과 지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등을 역임하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설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문화도시특별법 개정 등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 낸 인물로 평가받는다.

최근 자신의 정책 철학과 지역 발전 비전을 담은 저서를 출간하는 등 지방선거를 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광주를 위해, 호남 발전을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준호 국회의원도 최근 출마를 결심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선거에 첫 도전장을 낸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정 의원은 젊은 감각과 중앙 정치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기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정준호 의원은 “현 정부와 국정 처리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은 만큼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출 수 있는 후보로 한번 뛰어보겠다는 생각

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진보당 후보로는 이종욱 민주노동당 광주지역 본부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본부장은 퇴직을 앞둔 가운데 30년 공직생활을 접고 출마 준비에 나섰다.

1995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 건축주택과, 도시계획과 등을 거쳤으며 광주시공무원노조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장 등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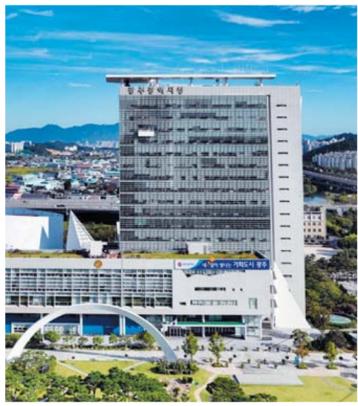
이종욱 본부장은 “공직생활을 하며 다양한 지역 현안을 지켜봤지만 민주당 독점 구조 속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해결책이 없었다”며 “10월 말~11월 초 시작 후 진보당에 입당해 출마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당 이형석 전 국회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광주시장 위원장,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형석 전 의원은 “아직은 고심 중”이라고 밝혔고,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장 위원장은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당내에서) 후보군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오는 11월 전당대회 이후 (당내) 지방선거 전략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변진기 기자



# 김영록 ‘3선 가도’…다선 국회의원들 ‘도전장’

## 전남지사

김영록 “도정 연속성” 출마 의지  
이개호 “출마 당연 내년 초 선언”  
신정훈 “준비 중…열심히 하겠다”  
주철현 “전남살릴 진짜일꾼 필요”  
서삼석 “고심…때되면 입장 발표”



(현직·가나다순)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지역 내 최대 관심 선거구 중 하나인 전남지사를 향한 정치권의 물밑 싸움도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다.

전남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사실상의 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선 7·8기 재선 도박(道伯)인 김영록 지사의 3선에 맞서 다선 국회의원 그룹이 도전하는 형태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김영록 지사의 3선 성공 여부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3선에 이름을 올린 도지사는 박준영 전지사(2004년 6월~2014년 6월)가 유일하다. 박 전지사의 경우 고(故) 박태영 전지사(2002년 7월~2004년 4월)의 사망으로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만큼 ‘2.5선’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허경만 전지사(1995년 7월~2002년 6월)는 재선에 그쳤고, 이낙연 전지사(2014년 7월~2017년 5월)는 초선 재임 중 국무총리로 발탁돼 재임 기간이 채 3년이 되지 않았다.

김영록 지사가 3선에 성공하면 진정한 3선 도박으로 기록된다는 의미다.

완도 고금 출신인 김 지사는 강진군수와 완도군수,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뒤 18·19대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2018년 민선 7기 전남지사에게 당선됐으며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38개월(대선 기간 제외) 중 32개월 동안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 1위를 기록했다. 앞서 민선 7기에도 조사가 이뤄진 43개월 중 30개월 동안 지지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선거 공약으로 지방선거 컷오프는 없다고 공약한 만큼 김 지사의 3선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도정의 연속성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겠다”며 “(민선 7·8기 동안) 기존 노후도 있고, 통상 핵심 현안이 완결될 때까지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벌여 놓은 많은 현안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다선 국회의원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후보군은 이개호 국회의원(4선, 담양·함평·영광·장성), 신정훈 국회의원(3선, 나주·화순), 서삼석 국회의원(3선, 영암·무안·신안), 주철현 국회의원(재선, 여수·갑)이다.

제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개호 의원은 전남도에서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했으며 행정부지사를 끝으로 퇴임한 뒤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김영록 지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맡았다.

담양 출신인 이개호 의원은 “당연히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다. 이미 기정사실화했다”며 “출마 선언은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내년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 출신 신정훈 의원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아 당내에서 존재감을 보였고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대선이 끝났으니 이제 전남지사 선거 준비를 시작할 생각”이라며 “관련 일정이나 계획 등은 더 준비해서 발표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출신 서삼석 의원은 출마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서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지방직 최고위원과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주변에서 전남지사 선거에 나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아직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다”며 “정치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본 뒤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 때가 되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출신 주철현 의원은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지방선거 준비에 나섰다.

주 의원은 지난달 22일 전남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무너져가는 전남을 살릴 진짜 일꾼이 필요하다”며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주 의원은 “가파른 인구 감소로 전남 17개 군 중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전남이 위기에 빠졌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제대로 통하는 주철현으로 바뀌어야 전남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고홍 출신인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이 지난 8월 취임식에서 “민주당 독선을 견제하고 공공선을 추구하겠다”며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진보당에서는 강진 출신으로 민주노동당 전남본부장 등을 지낸 민정기 전남도당 지도위원이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한 조국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김재정 기자

